땅에서 지옥 천국 골라 살기

(마태복음 20:1~16)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에서 지옥 천국 골라 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에서 지옥 천국 골라 살기'
오늘 본문에서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19장의 30절을 돌이켜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순서만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게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 또한 이 비어있음에서 찾아옵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것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천국과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고독과 외로

움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입니다. 반면 천국은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곳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함을 통해 마음의 일시적인 채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짐은 결코 길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3일만 지나면 마음은 다른 채울 거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은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채워짐을 느끼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기에 이 세상에서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핍감 즉 비어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농사는 6월에 시작하여 9월에 수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포도가 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확을 끝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품꾼들을 모집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말씀에서 이른 아침이란 곧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여전히 일손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시(제삼시)에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또 부족해서 정오 12시(제육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이윽고 또 일손이 모자라서 오후 3시(제구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막바지에 이를 오후 5시(제십일시)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1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 채 한 시간도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당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시급도 채 받지 못할까 푸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루치의 일당을 지불해줍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에서 보자면 주인의 지불방식은 부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파하시고자 한 천국은 세상의 원칙에 구속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상의 비유 속에 담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날로 가져와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급 만 원짜리 알바를 12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당 12만 원은 원했던

일당과 일치했기에 아무 불만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기 한 시간 전에 불려온 사람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허탕을 쳤지만 단돈 만 원이라도 받고자 따라온 것입니다.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루 일당이 필요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만 원이라도 받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루 일당인 12만 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은 일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보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원했던 12만 원이라는 합당한 일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시간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 12만 원을 받았으니 자신은 144만 원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 13~14절을 보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한편 늦게 온 사람은 황공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도 12만 원의 하루 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갈 뻔 했는데 겨우 일을 얻어 만원이라도 벌 수 있게 되었음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루 일당인 12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12시간 일한 사람은 마음에 억울함이 남았지만 계약조건대로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주인이 공평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두 이 마음을 모두 고려해보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9장 29~30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본에서는 형제자매에 더해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아내의 기준에서 보자면 남편이 들어있어도 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그러나"라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이는 곧 29절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에 관심을 쏟으며 수고와 노력을 보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심거리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는 삶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본래 12만 원 일당에 만족해야 하는데 144만 원의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원망과 박탈감과 상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까지도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꼴찌 하는 사람들입니다. 늦게 와서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배를 받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고작 한 시간만 일했을지라도 12만 원의 온전한 일당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자기계발서를 읽고 부부학교 부모학교도 다녀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노력하여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노력을 많이 하여 세상에서 일등 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은 끊임없는 결핍감의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로인해 마음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싸개로 생각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의 마음을 생명 싸개 속에 품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부름 받아 온 일꾼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수고와 열심과 충성과 희생을 하지 않은 꼴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곳으로 따라가려고만 했기에 좋은 배우자나 부모가 되고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을 주시듯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고작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이 충만했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 기쁨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데 부부관계가 나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일터에 온 사람처럼 세상에 대한 수고와 노력과 관심에 있어서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 싸개가 되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19장 29절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일련의 사건에 마음을 보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싸개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마음이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느끼시던 하나님을 같이 느끼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천국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처럼 하루 종일 노력과 수고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는 설령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기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등이 되고자 하는 동안에는 "이대로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옥처럼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노력과 수고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낸 만큼 마음의 부족감은 커질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열심히 오래 일한만큼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2만 원의 일당 앞에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의 불평이 100%라면 12시에 온 사람은 50%의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열심을 낸 만큼 불평과 원망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꼴찌입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사건에 마음을 보내느라 세상의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다섯 시에 왔으나 온전한 일당을 받은 사람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나 재정문제 등의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일한 시간은 다르

지만 동일한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를 악하다고 받아들인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재벌그룹의 회장이라고 해서 감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결핍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거지 나사로와 같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사글셋방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쏟아 붓는 나의 주체성과 노력과 판단과 비전은 결코 기쁨과 만족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쏟아 부을수록 끊임없는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오르심을 날마다 반복하는 자들이 바로 1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입니다.

설령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감옥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세상의 관심거리를 추구해왔다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받을 12만 원 일당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132만 원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스스로의 주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재벌이든 거지든 동일한 결핍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의 주체성으로 살아가기를 버리고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2만 원의 결핍감의 삶은 지옥의 삶이고 12만 원의 감사함은 천국의 삶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세에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몸이 죽은 후에 영으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결핍감과 원망과 불평 밖에 없는 지옥을 살아갈 것이며, 죽어서는 영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

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지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몸을 입고 지옥을 살았다면 영으로도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형통하면 행복할 거야”라는 말들은 거짓 희망입니다. 내세에 영으로 지옥을 살 때는 거짓 희망조차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희망 때문에 노력과 수고로 일등하면서 영원한 결핍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돈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크게 짓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를 잘 기르는 등의 거짓 희망으로 지옥을 살게 됩니다.

땅에서 천국과 지옥 골라 살기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여러분은 5시에 일하러 와서 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12만 원을 받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가 중단된다면 132만 원 만큼의 불평과 결핍감의 지옥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준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농간에서 벗어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